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조 용 래†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정신장애의 발생과 유지 및 치료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인들의 정서조절곤란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된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DERS)'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후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그 심리측정적 속성들을 확인하고자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 요인 분석 결과, 한국판 DERS는, 원판과 동일하게,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그리고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 2에서 다른 독립된 표본에 의해 대체로 반복 검증되었다. 연구 2에서 한국판 DERS는 내적 일치도가 높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적절하였으며, 수렴과 변별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및 증분타당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이 결과들은 한국판 DERS가 정서조절곤란의 일반적 측면과 여러 특정한 측면들을 매우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하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정서조절곤란, 한국판 DERS, 정신장애, 경험적 회피, 심리측정적 속성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림대학교 교비 학술연구비(HRF-2007-1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의 일부 내용은 2007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용래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Fax : 033-256-3424 / E-mail : yrcho@hallym.ac.kr

최근 들어, 정신장애나 정신병리의 발생과 유지 및 치료에서 정서조절과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공황장애(Levitt, Brown, Orsillo, & Barlow, 2004), 공황증상(Tull, 2006), 일반화된 불안장애(Mennin, Heimberg, Turk, & Fresco, 2005; Salters-Pedneault, Roemer, Tull, Rucker, & Mennin, 2006), 외상후 스트레스장애(Cloitre, 1998; Roemer, Litz, Orsillo, & Wagner, 2001), 우울증(Rude & McCarthy, 2003), 불안과 우울장애(Campbell-Sills, Barlow, Brown, & Hofmann, 2006), 물질남용(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자해행동(Gratz, 2003), 경계선 성격장애(Linehan, 1993)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rlow, Allen과 Choate(2004)는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같은 정서장애를 이해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한 개념으로 정서조절곤란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장애에 대한 미래의 치료는 정서조절곤란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와 정신건강 영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을 적절하게 다룬 연구는 사실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많지 않은 주된 이유는 정서조절에 대한 합의된 개념화가 부족하고, 이 구성개념의 복잡성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포괄적인 측정도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Gratz와 Roemer(2004)는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서조절/정서조절곤란을 정신병리나 정신장애와 관련짓고자 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조절곤란이란 구성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 정서조절곤란과 비슷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했거나(예: 박진미, 서수균, 이훈진, 2007) 여러 가지 측정도구들을 함께 사용해 온 경향(예:

조성은, 오경자, 2006; Mennin et al., 2005)이 발견된다. 지금까지 정서조절이나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어 온 도구들에는 Trait Meta-Mood Scale(TMMS;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Generalized Expectancy for Negative Mood Regulation Scale(NMRS; Cantanzaro & Mearns, 1990), 그리고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AAQ; Hayes et al., 2004) 등이 있다.

TMMS는 10여 년 전 국내에 소개되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측정하는 도구로 알려져 있다. TMMS에는 감정에 대한 주의, 감정의 명료성 및 기분 개선이라는 세 가지 하위척도가 있는데, 이 중 기분 개선 하위척도에 속한 몇몇 문항들은 부적적인 정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런 정서를 회피하는 전략에 얼마나 동의하는 지를 묻는데, 이런 문항들은 맥락에 상관없이 정서적 회피(emotional avoidance)가 다른 전략들에 비해 보편적으로 더 적응적이라는 점을 함축한다. 이는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들이 맥락의존적인 성질을 지니며, 각종 정서조절전략들을 각 상황에 맞게 융통성있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적응적인 정서조절이라는 견해(Cole, Michel, & Teti, 1994; Thompson, 1994)와는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전략이 사용되는 맥락에 관한 정보가 없이, 개인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정서조절전략들을 사용하는 지에 대해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감정조절능력에 관한 정보를 별로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Gratz & Roemer, 2004). 이러한 제한점은 TMMS 뿐 아니라, NMRS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며, AAQ에서는 정서적 회피가 부적응적인 성질이 있다고 함축하는 것만 다를 뿐이 역시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동

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NMRS에는 정서조절의 중요한 측면들로 간주되는 정서의 자각, 이해 및 수용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빠져 있으며, TMMS에는 부적 정서를 경험할 때 목표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AAQ는 경험적 회피와, 내적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정서를 자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이 빠져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신병리나 정신장애에서 정서조절/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을 적절하게 다룬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상실제에서 내담자들의 정서조절곤란을 제대로 이해하며 이를 치료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서조절/정서조절곤란이라는 구성개념을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정서조절전략들의 맥락 의존적 성질이 반영된 측정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Gratz와 Roemer(2004)는, 정서조절과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기존의 개념화들과 선행연구들을 두루 리뷰한 후 정서조절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정서조절을 (1) 정서의 자각과 이해, (2) 정서의 수용, (3)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개인이 바라는 목표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4) 개별적인 목표와 상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바라는 대로 정서적 반응들을 조절하려고 상황적으로 적절한 정서조절전략들을 융통성있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Gratz와 Roemer(2004)는 기존의 측정도구들보다 정서조절곤란을 더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DERS)을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반응에 대한 비수용성, 목표지향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 충동통제곤란, 정서적 자각의 부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그리고 정서조절전략들에 대한 접근 제한이라는 6가지 요인(차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마지막 차원은 정서반응들을 완화하기 위해 상황에 적절한 전략들을 융통성있게 사용하는 빈도를 반영한다. 이처럼 DERS는 정서조절곤란의 다차원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들의 맥락 의존적 성질을 고려하기 위해 그 전략들의 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Gratz & Roemer, 2004)에서 DERS는 내적 일치도가 높고,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하며, 구성 및 예측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에 정서조절곤란이나 정서조절능력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는 포괄적인 측정도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DERS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그 요인구조와 내적 일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그리고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표본을 통해 한국판 DERS의 요인구조와 내적 일치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435명(남자 166명, 여자 269명)이 연구 1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38세(표준편차 2.34세, 범위: 17세~43세)이었다.

측정 도구

정서조절곤란 척도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

이 척도는 정서조절곤란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총 36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피검사자들로 하여금 각 문항내용이 평소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해당되는지 그 정도를 5점 척도[1점: 거의 그렇지 않다(0-10%), 2점: 때때로 그렇다(11-35%), 3점: 대략 반쯤 그렇다(36-65%), 4점: 대부분 그렇다(66-90%), 5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91-100%)]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36개 문항 중 11개는 반대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원판 DER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전체 척도 .93 이었고, 6개 하위척도 모두 .80 또는 그 이상이었다(Gratz & Roemer, 2004).

한국판 DERS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제작되었다. 먼저, 원판 DERS의 문항들을 한국말로 번역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한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 2명이 각자 독립적으로 번역한 후에 번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두 사람 간에 상호 협의를 거쳤으며,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임상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심리학 교수 1명이 제 3자 입장에서 최종

적으로 문항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하여 3자간에 최종 합의에 이른 번역내용들을 채택하였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문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역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판 DERS의 문항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결 과

요인 구조

한국판 DERS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한국판 DERS의 36개 문항에 반응한 자료에 대해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7개 나왔다(10.43, 3.88, 2.97, 1.61, 1.49, 1.29, 1.17). Scree 검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요인의 개수를 4개, 5개, 6개 및 7개로 각각 지정한 다음,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법(delta = 0)으로 요인분석을 차례대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요인의 수를 4개와 5개로 각각 지정했을 때에는 부하된 문항의 수가 2개에 불과한 요인이 있었으며, 요인의 수를 7개로 지정했을 때에는 이질적인 내용의 문항들이 동일한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에, 요인의 해석 가능성과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수를 고려할 때, 6요인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에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는 요인의 수를 몇 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든, 17번 문항이 다른 문항들과는 달리 해당 요인에 반대 방향으로 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¹⁾ 이에 따라 17번 문항을 제외한 35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 수를 6개로 지정해 준 후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법($\text{delta} = 0$)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온 결과를 기초로,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특정 문항이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Floyd & Widaman, 1995). 첫째, 특정 문항의 요인부하계수가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과, 두 개 이상의 요인들에 중복되게 부하된 문항의 경우 각 요인들에 대한 요인부하계수간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모두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6개의 요인은 모두 합쳐서 문항 전체 변량의 61.28%를 설명하였다. 문항별로 각 요인에 대한 최종 요인부하계수가 나와 있는 요인형태계수행렬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은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문항 27)’ 등 5개 문항들이 높게 부하되었으며, ‘충동통제곤란’으로 이름 붙여졌다. 요인 2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문항 2)’ 등 7개 문항이 높게 부하되었으며,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3은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문항 25)’ 등 8개 문항들이 높게 부하되었으며,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으로 이름 붙여졌다. 요인 4는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문항 5)’ 등 3개 문항이 높게 부하되었으며,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5는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문항 35)’ 등 6개 문항들이 높게 부하되었으며,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1)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DERS의 각 문항별로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을 구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으로 이름 붙여졌다. 요인 6은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문항 18)’ 등 4개 문항이 높게 부하되었으며,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으로 명명되었다.

연구 1의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나온 한국판 DERS의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요인들 간의 상관은 중등도 또는 그보다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는데 비해, 요인 2와 다른 요인들 간의 상관은 대체로 매우 낮았다.

내적 일치도

한국판 DERS의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판 DERS의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 및 Cronbach's alpha 계수를 각각 구하였다. 이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판 DERS의 35개 문항들의 경우,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은 $r = .12$ (문항 10)~ $.73$ (문항 33)이었다. 각 하위 척도별로²⁾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을 구해본 결과, 각 하위척도들에 속한 문항들 모두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6개의 각 하위척도에 속한 문항들의 내용 동질성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한국판 DERS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2) 한국판 DERS의 하위척도는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연구 1과 연구 2의 자료 모두에서 해당 요인에 공통되게 높게 부하된 문항들만으로 각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하위척도 1은 문항 수 5개, 하위척도 2는 문항 수 7개, 하위척도 3은 문항 수 7개, 하위척도 4는 문항 수 3개, 하위척도 5는 문항 수 5개, 그리고 하위척도 6은 문항 수 3개로 구성하였다.

표 1. 각 표본별 한국판 DERS의 요인형태계수 행렬

문항 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1	-.09(-.12)	.63(.72)	.12(.12)	.36(.16)	-.16(-.01)	.09(.03)
2	.00(-.07)	.80(.75)	.02(.00)	.02(.02)	-.06(.04)	.05(-.03)
3	.43(.48)	-.15(-.13)	.23(.06)	.15(.27)	.17(.09)	-.08(.07)
4	.15(.03)	.13(.17)	-.04(.05)	.74(.63)	.16(-.03)	-.09(-.04)
5	.09(.09)	.08(.09)	-.02(-.01)	.75(.77)	.08(-.04)	.08(.09)
6	.07(.02)	.73(.70)	-.07(.00)	-.04(-.06)	.05(.02)	-.07(-.04)
7	-.05(-.10)	.67(.73)	-.01(.06)	.36(.21)	-.14(-.05)	.11(.11)
8	-.09(-.01)	.71(.69)	.00(.01)	-.02(.07)	.03(-.01)	.01(-.12)
9	.13(.08)	-.07(.00)	.27(.14)	.38(.45)	.15(.11)	.07(.17)
10	-.10(.01)	.48(.46)	.09(-.05)	.05(.09)	.11(.09)	-.15(-.32)
11	.07(.01)	-.07(.01)	.70(.80)	.00(-.08)	.01(-.13)	-.07(.06)
12	.05(.02)	.03(.03)	.58(.65)	.20(.05)	-.10(.02)	-.01(.02)
13	.07(.15)	-.05(-.02)	.02(.16)	-.02(.05)	.05(.10)	.74(.59)
14	.75(.65)	-.04(.00)	.07(.10)	-.03(.07)	-.12(.01)	.22(.18)
15	.14(.22)	-.06(.06)	-.04(.13)	.10(-.02)	.52(.56)	.17(.04)
16	-.03(.01)	-.10(-.04)	.20(.26)	.17(.05)	.39(.36)	.26(.27)
18	-.03(.11)	-.01(-.07)	.01(.02)	.00(.13)	-.01(.13)	.87(.66)
19	.70(.69)	-.02(-.05)	.06(.12)	.12(.06)	-.06(.04)	.19(.12)
20	.25(.21)	.20(.32)	-.17(-.07)	-.10(-.06)	.21(.04)	.27(.32)
21	-.01(.08)	.02(-.06)	.72(.65)	-.12(.06)	.05(.04)	.03(-.13)
22	.04(.04)	.24(.41)	-.05(-.01)	-.12(-.11)	.46(.20)	.04(.23)
23	-.14(-.19)	.06(.01)	.64(.60)	.06(.12)	.09(.23)	.10(.11)
24	.38(.28)	.23(.22)	-.10(.03)	-.19(-.13)	.35(-.17)	-.01(.09)
25	-.03(-.04)	.01(-.04)	.73(.62)	-.10(.19)	-.02(.05)	.01(-.14)
26	.08(.18)	.00(-.04)	.06(.07)	-.06(.14)	.05(.12)	.75(.60)
27	.76(.68)	-.04(-.09)	.11(.15)	.11(.11)	.02(.04)	.13(.10)
28	.02(.14)	.04(.16)	.28(.28)	.11(.15)	.49(.38)	.03(-.13)
29	.17(.06)	.02(.07)	.72(.82)	-.02(-.07)	.03(-.01)	.05(.06)
30	.24(.10)	.08(.00)	.64(.66)	.05(.01)	-.02(.11)	.04(.04)
31	.05(.16)	-.01(.02)	.21(.29)	.17(.05)	.40(.45)	.06(-.11)
32	.65(.80)	-.02(-.04)	.15(.02)	.15(.06)	.09(.26)	.04(-.13)
33	.26(.37)	.11(.01)	.13(.03)	.14(.09)	.19(.30)	.38(.34)
34	.17(.20)	.47(.45)	-.02(-.04)	-.15(.00)	.05(-.15)	.01(.05)
35	-.09(.03)	-.13(.01)	.09(.04)	.15(.04)	.54(.58)	.13(.16)
36	.20(.13)	-.01(-.06)	.39(.17)	.12(.15)	.22(.43)	.15(.23)

주. () 속의 숫자는 연구 2의 결과임. 문항 17은 예상과 반대방향으로 부하되어서 제외되었음; 굵은 글씨 의 밑줄 친 숫자는 양 표본에서 해당 문항이 특정 요인에 높게 부하되었음을, 그리고 밑줄만 친 숫자는 특정 표본에서만 높게 부하되었음을 의미함.

표 2. 연구 1과 연구 2의 요인상관행렬표

요인	1	2	3	4	5	6
1	-					
2	.08(.18)	-				
3	.28(.38)	-.05(.04)	-			
4	.11(.18)	.10(.15)	.43(.48)	-		
5	.40(.29)	.16(-.01)	.29(.50)	.13(.39)	-	
6	.50(.49)	.03(.06)	.30(.24)	.20(.04)	.38(.25)	-

주. () 속의 숫자는 연구 2의 결과임.

표 3. 각 표본별 한국판 DERS 전체 척도와 하위척도들의 내적 일치도 분석

척도	문항 수	Cronbach's α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
전체 척도	35	.92(.93)	.12 ~ .70(.06 ~ .69)
충동통제곤란	5	.89(.90)	.54 ~ .85(.59 ~ .80)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	7	.83(.83)	.37 ~ .71(.40 ~ .68)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7	.87(.89)	.59 ~ .75(.65 ~ .76)
정서적 명료성 부족	3	.76(.73)	.50 ~ .68(.50 ~ .66)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5	.79(.81)	.53 ~ .60(.55 ~ .71)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3	.86(.85)	.70 ~ .77(.68 ~ .75)

주. () 속의 숫자는 연구 2의 결과임.

계수는 .92였고, 6개 하위척도들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6(하위척도 4)~ .89(하위척도 1)였다. 따라서 한국판 DERS의 내적 일치도는 양호하다고 하겠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그리고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연구 2를 수행하였다.

방 법

연구 2

연구 1에서 밝혀진 한국판 DERS의 요인구조가 다른 독립적인 대학생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교차 타당화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한국판 DER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연구 대상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 중 연구 1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들 420명(남자 165명, 여자 255

명)이 연구 2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79세(표준편차 2.20세, 범위: 18세~33세)이었다. 이 학생들 중 38명(남자 8명, 여자 30명)은 2주 간격으로 한국판 DERS를 두 번 작성하였다. 이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34세(표준편차 1.68세, 범위: 20~28세)였다.

한국판 DERS의 타당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연구 2의 전체 참여자들 중 286명(남자 119명, 여자 167명)은, 한국판 DERS를 비롯한 다른 척도들도 함께 작성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41세(표준편차 2.28세, 범위: 18~33세)였다. 이 중 98명(남자 42명, 여자 56명)은 한국판 개정된 불안민감성 지표의 사회적 염려차원을 추가로 더 작성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17세(표준편차 2.52세, 범위: 18~33세)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DERS의 타당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이 검사 외에, 다음 척도들을 함께 사용하였다.

특질 상위-기분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이 척도는 정서지능 및 그 하위차원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 등(1995)이 개발한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이 척도는 각 개인이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재는 주의 차원 13개 문항,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명료성차원 11개 문항, 그리고 부정적 기분을 회복시키고 긍정적 기분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분 개선차원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 정

도를 5점 Likert형의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점: 중간이다, 7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역한 척도를 옥수정(2001)이 약간 수정한 한국판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한국판 TMM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 .82, 주의차원 .72, 명료성차원 .81, 그리고 기분 개선차원 .74였다.

마음챙김 주의 자각척도(Mindful Attention Awareness Scale, MAAS)

이 척도는 개인이 현재 경험하는 것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rown과 Ryan(2003)이 개발한 총 15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각 문항에 해당되는 경험을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빈도를 5점 Likert형의 척도(1점: 거의 그렇지 않다 ~ 6점: 거의 항상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종희, 이우경, 이수정, 이원혜(2007)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내적 일치도와 요인타당도 및 공존타당도를 확인한 한국판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료로 산출한 한국판 MAAS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5$ 였다.

수용과 행위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AAQ)

이 척도는 경험적 회피와 통제, 내적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정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ayes 등(2004)이 개발한 9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각 문항별로 평소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거나 자신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Likert형의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때때로 그렇다, 7점: 항상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와 Cho(2005)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내적 일치도와 요인타당도를 확인한 한국판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료로 산출한 한국판 AAQ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63$ 이었다.

사고 억제 질문지(White Bear Suppression Inventory, WBSI)

이 척도는 경험적 회피의 일부 측면으로 간주되는 사고 억제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egner와 Zanakos(1994)가 개발한 것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5점 Likert형의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승과 원호택(1999)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한 한국판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료로 산출한 한국판 WBSI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4$ 였다.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이 척도는 Beck 등이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생리적 영역을 포괄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총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Beck, Ward, Mendelson, Mock, & Erbaugh, 1961; Beck, Rush, Shaw, & Emery, 1979).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번역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했

다. 이 검사는 각 항목마다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네 문장 중 지난 1주일 동안의 피검사자의 경험에 적합한 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심한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한국판 BAI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Beck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이 척도는 불안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eck, Epstein, Brown과 Steer(1988)가 개발한 총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며, 지난 1주일 동안 각 문항에서 기술하는 증상으로 인해 불편하게 느낀 정도를 0점에서 3점까지 Likert형의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Kwon(1992)에 의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척도에서 일부 문항의 번역을 조용래와 김은정(2004)이 수정한 한국판 BAI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한국판 BAI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이 척도는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들의 함으로 간주되는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yff 등(Ryff, 1989; Ryff & Keyes, 1995)이 개발한 18개 문항으로 된 자기 보고형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기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숙달감, 삶의 목적 및 개인적 성장 등 6개의 차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문항분석과 요인분석 후 최종

선정한 46개 문항에서 Ryff와 Keyes(1995)가 각 차원별로 추천했던 3개의 문항들을 뽑아 구성한 총 18개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료로 산출한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79$ 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이 척도는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이 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7점 Likert형의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정현과 서은국(2005)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한국판 SWLS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료로 산출한 한국판 SWLS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이 척도는 개인의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에 각각 해당되는 형용사 10개씩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척도에서 한 개 문항의 번역을 일부 보충하여 사용하였다.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 한국판 PANAS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기민한(alert)'이라는 문항이 원판의 경우와 달리 부적 정서에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부하된 것으로 나왔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민한' 뒤에 '정신을 바짝 차린'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본 연구의 자료에다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여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법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원판과 동일한 결과 패턴을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료로 산출한 한국판 PANA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정적 정서차원 .88, 부적 정서차원 .84로 나왔다.

한국판 개정된 불안민감성 지표(Anxiety Sensitivity Index-Revised, ASI-R)

이 검사는 개인의 불안민감성 및 그 하위차원들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Cox(1998)가 개발한 총 36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척도이다. 이 척도는 호흡계 증상에 대한 두려움(호흡계 감각 염려), 공적으로 관찰 가능한 반응에 대한 두려움(사회적 염려), 심혈관위장계 증상에 대한 두려움(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 그리고 인지적 통제 불능에 대한 두려움(심리적 염려) 등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용래(2003)가 번역한 한국판 ASI-R 중 사회적 염려차원에 해당되는 7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료로 산출한 한국판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왔다.

결 과

요인구조의 교차 타당화

연구 1에서 보고된 한국판 DERS의 요인구조가 교차 타당화되는 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대학생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연구 2의 자료에 대해 요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7개 나왔다(11.16, 4.05, 2.72, 1.38, 1.25, 1.14, 1.07). 이에 따라, scree 검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요인의 개수를 4개, 5개, 6개 및 7개로 각각 지정한 다음,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법($\text{delta} = 0$)으로 요인분석을 차례대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요인의 수를 4개와 5개로 각각 지정했을 때에는 부하된 문항의 수가 2개에 불과한 요인이 있었으며, 요인의 수를 7개로 지정했을 때에는 이질적인 내용의 문항들이 동일한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에, 요인의 해석 가능성과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수를 고려할 때, 6요인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2의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도, 요인의 수를 몇 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든, 17번 문항이 다른 문항들과는 달리 해당 요인에 반대 방향으로 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17번 문항을 제외한 35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 수를 6개로 지정해 준 후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법($\text{delta} = 0$)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문항이 특정 요인에 부하된 것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연구 1의 요인분석에서 적용했던 기준 두 가지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별로 높게 부하된 요인은, 문항 22, 33과 36을 제외하고는, 연구 1에서의 결과와 거의 대부분 비슷하였다. 연구 2의 자료에 대한 각 문항별 각 요인에 대한 최종 요인부하계수가 나와 있는 요인형태계수행렬은 표 1의 () 속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문항 17을 제외한 한국판 DERS의 35개 문항 중 5개의 문항들이 연구 1과 연구 2의 자료들 간에, 또는 원판 DERS에

대한 요인분석(Gratz & Roemer, 2004)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문항 20(‘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은 끝마칠 수 있다.’)은 연구 1과 연구 2의 자료 모두에서, 원판 DERS에서와는 다르게, 어떤 요인에도 뚜렷하게 부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항 22(‘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궁극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와 문항 33(‘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은 연구 1에서는 원판 DERS의 결과와 동일하게 각각 요인 5(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와 요인 6(목표지향 행동의 어려움)에 부하되었는데 비해, 연구 2에서는 각각 요인 2(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에 부하되었거나 또는 두 요인에 중복 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항 24(‘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연구 1과 2의 두 표본 모두에서, 원판 DERS와 다르게, 두 요인에 중복 부하되었거나 어떤 요인에도 뚜렷하게 부하되지 않았다. 문항 36(‘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들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의 경우, 연구 2에서는 원판 DERS와 마찬가지로 요인 5(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에 뚜렷하게 부하되었으나, 연구 1에서는 요인 3(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에 부하되었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 각각 구한 요인형태계수를 사용하여 각 요인별 Tucker(1951)의 일치계수를 구한 결과, 요인 2는 .98, 요인 3과 요인 1 양자 모두 .96으로 매우 높았고, 요인 6은 .91, 요인 4는 .88로서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요인 5는 .79로서 다소 미흡한 편이었다.

연구 2의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나온 한국판 DERS의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1에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요인들은 서로 중등도 또는 이보다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는데 비해, 요인 2와 다른 요인들 간의 상관은 대체로 아주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차 및 연령의 효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Gratz & Roemer, 2004)에서 원판 DERS로 측정된 정서조절곤란 전체 점수와 6가지 하위차원들 중 정서적 자각의 부족 차원에서만 남자집단이 여자집단에 비해 더 높았을 뿐, 전체 점수 및 나머지 하위차원들에서는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인지적 및 정서적 마음챙김 척도 개정판(Cognitive and Affective Mindfulness Scale-Revised)으로 측정된 마음챙김의 정도는 남자대학생집단이 여자대학생 집단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Feldman, Hayes, Kumar, Greeson, & Laurenceau, 2007). 대학생들에게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검사지(Inventory of Cognitive Affect-Regulation Strategies)를 실시한 연구(Kamholz, Hayes, Carver, Gulliver, & Perlman, 2006)에서는 표본에 따라 결과가 약간 달랐는데, 15가지 정서조절전략 중 종교적 사고전략에서만 남녀차가 유의미하였거나 또는 어떤 유형의 정서조절전략에서든 성차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사용된 측정도구나 표본에 따라 성차에 관한 결과가 불일치를 보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 2에서 한국판 DERS로 측정된 정서조절곤란의 정도에 성차가 유의미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남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독립적인 t 검정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판 DERS 전체 척도의 경우 남자의 평균은 85.37점(표준편차 22.31점), 여자의 평균은 82.86점(표준편차 18.66점)으로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25.16) = 1.00$, ns. 이에 더해, 한국판 DERS의 6개 하위척도 점수들에서도 성차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해 본 결과, 6개의 하위척도 모두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82 < r_s < 1.86$, ns.

정서조절곤란의 수준이 연령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연령과 한국판 DERS 전체 점수 및 6개 하위척도 점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각각 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DERS의 전체 및 6개 하위척도 점수들 모두 연령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10 < r < .07$, ns.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판 DERS로 측정된 정서조절곤란의 정도에는 성차 및 연령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내적 일치도

한국판 DERS의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판 DERS의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 및 Cronbach's alpha 계수를 각각 구하였다. 이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판 DERS의 35개 문항들의 경우,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은 $r = .06$ (문항 10)~ $.69$ (문항 33)였다. 각 하위척도별로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을 구해본 결과, 연구 1의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하위척도들에 속한 문항들 모두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6개의 각 하위척도에 속한 문항들의 내용 동질성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연구 2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

수는 .93이었고, 6개 하위척도들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3(하위척도 4)~.90(하위척도 1)이었다. 따라서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2의 자료를 통해 검증된 한국판 DERS의 내적 일치도는 양호하다고 하겠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K-DERS 전체 척도의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 = .90(p < .001)$ 이었다. 6개의 하위척도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_s = .79 \sim .86(p_s < .001)$ 이었다. 따라서 이 결과들은 한국판 DERS의 전체 척도 및 하위척도 모두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³⁾

수렴 및 변별타당도

한국판 DERS의 수렴과 변별타당도를 검토해 보기 위하여, 한국판 DERS와 다른 측정도구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먼저, 한국판 DER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정서조절곤란과 비슷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구성개념들로 생각되는 정서지능, 현재 경험에 대한 주의와 자각, 경험적 회피, 그리

고 사고억제의 각 측정도구들인 한국판 TMMS, MAAS, AAQ 및 WBSI와 한국판 DERS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상관계수들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한국판 DERS 전체 척도는 이러한 척도들 모두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한국판 DERS의 6개 하위척도들이 관심있는 구성개념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하위척도 2를 제외한 5개 하위척도 모두 한국판 TMMS, MAAS, AAQ 및 WBSI와 각각 중간수준에서 높은 수준 사이의 상관을 보였다. 한국판 DERS의 하위척도 2(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는 한국판 TMMS와 높은 부적 상관을, 그리고 한국판 AAQ 및 MAAS와 각각 비교적 낮지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비해, 한국판 WBSI와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한국판 DERS의 6개 하위척도들이 한국판 TMMS의 세 하위척도들과 차별적인 관계 양상을 보이는 지를 살펴보았다. 한국판 DERS의 하위척도 2와 한국판 TMMS의 주의차원의 상관은 한국판 DERS의 나머지 5개의 하위척도들 각각과 한국판 TMMS의 주의차원의 상관들 모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t_s(283) > 2.20, p_s < .05$. 한국판 DERS의 하위척도 4(정서적 명료성의 부족)는 한국판 DERS의 하위척도 2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하위척도들에 비해 한국판 TMMS의 명료성 차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t_s(283) > 3.37, p_s < .01$. 한국판 DERS의 하위척도 5(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와 한국판 TMMS의 기분 개선 차원의 상관은 한국판 DERS의 하위척도 6(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및 하위척도 3(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각각과 한국판 TMMS의 기분 개선 차원의 상관에 비해 유의미하게

3) 시간적 안정성의 또 다른 지표는 두 시기에 각각 측정된 참가자들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는 것이다(Brown & Ryan, 2003). 이 결과는 상관계수로 구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즉, 한국판 DERS 전체 척도에서 참가자들이 보인 평균 점수는 시기 1에서 77.42점(표준편차 18.65점), 시기 2에서 75.55점(표준편차 19.14점)이었으며, 쌍별 t 검증으로 분석해 본 결과, 두 평균 점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37) = 1.36, ns$. 아울러, 한국판 DERS의 6개 하위척도들 중 어느 척도에서든 두 시기간의 평균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한국판 DERS와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 및 각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1	2	3	4	5	6	7	평균	표준편차
1.DERS1	--							11.15	4.88
2.DERS2	.04	--						17.64	4.25
3.DERS3	.52***	.10	--					14.73	6.04
4.DERS4	.47***	.32***	.56***	--				5.94	2.20
5.DERS5	.64***	.12*	.68***	.59***	--			10.45	3.97
6.DERS6	.59***	-.02	.44***	.42***	.57***	--		9.45	3.22
7.DERST	.80***	.34***	.79***	.72***	.84***	.71***	--	83.91	20.26
8.TMMS-A	-.02	-.38***	-.10	-.23***	-.09	.03	-.15*	45.65	5.73
9.TMMS-C	-.37***	-.56***	-.46***	-.64***	-.50***	-.34***	-.65***	38.17	6.21
10.TMMS-R	-.31***	-.31***	-.22***	-.30***	-.39***	-.29***	-.43***	20.76	4.03
11.TMMST	-.32***	-.60***	-.38***	-.57***	-.46***	-.27***	-.58***	104.58	11.41
12.MAAS	.44***	.15**	.49***	.52***	.58***	.44***	.60***	43.87	10.62
13.AAQ	.48***	.24***	.44***	.45***	.54***	.53***	.63***	35.52	6.55
14.WBSI	.39***	.11	.39***	.52***	.38***	.38***	.50***	40.02	13.49
15.BDI	.43***	.13*	.40***	.46***	.51***	.33***	.52***	10.18	7.83
16.BAI	.40***	.12*	.36***	.41***	.40***	.24***	.45***	8.58	8.77
17.PWBS	-.37***	-.33***	-.32***	-.36***	-.44***	-.35***	-.52***	76.29	9.58
18.SWLS	-.29***	-.15**	-.18**	-.27***	-.26***	-.35***	-.36***	18.78	5.87
19.PANAS-P	-.14*	-.12*	-.04	-.08	-.19***	-.30***	-.21***	16.20	8.24
20.PANAS-N	.35***	.14*	.35***	.44***	.40***	.26***	.45***	12.42	7.44
21.ASIR-S	.05	-.10	.04	.04	.14	.20*	.11	8.73	6.93

주. n = 286. 단, ASIR-S를 작성한 표본의 수는 n = 98임. DERS1 = 정서조절곤란척도-충동통제곤란; DERS2 = 정서조절곤란척도-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DERS3 = 정서조절곤란척도-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DERS4 = 정서조절곤란척도-정서적 명료성부족; DERS5 = 정서조절곤란척도-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DERS6 = 정서조절곤란척도-목표지향적 행동의 어려움; DERST = 정서조절곤란척도 전체; TMMS-A = 특질 상위-기분척도-주의차원; TMMS-C = 특질 상위-기분척도-명료성차원; TMMS-R = 특질 상위-기분척도-기분 개선차원; TMMST = 특질 상위-기분척도 전체; MAAS = 마음챙김 주의자각척도; AAQ = 수용과 행위질문지; WBSI = 사고억제 질문지; BDI = Beck 우울척도; BAI = Beck 불안척도; PWBS = 심리적 안녕감척도; SLWS = 삶의 만족도 척도; PANAS-P = 정적 및 부정 정서 척도-정적 정서; PANAS-N = 정적 및 부정 정서 척도-부정 정서; ASIR-S = 개정된 불안민감성 지표-사회적 염려차원.

* $p < .05$. ** $p < .01$. *** $p < .001$.

더 높았다(각각 순서대로 $t(283) = 2.05, p < .05$; $t(283) = 3.78, p < .01$). 따라서 이 결과들은 한국판 DERS의 전체 척도와 하위척도들의 수렴타당도 뿐 아니라, 하위척도들의 변별타당도 역시 양호함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 한국판 DERS의 변별타당도를 더 확인해 보기 위하여, 정서조절곤란과는 상이한 구성개념인 불안민감성의 공적으로 관찰 가능한 증상에 대한 두려움차원을 측정하는 척도인 한국판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DERS의 전체 척도 및 (하위척도 6을 제외한) 5개의 하위척도들은 한국판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판 DERS의 하위척도 6과 한국판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의 상관은 유의미하지는 했지만 그 정도가 아주 낮은 편이었다($r = .20, p < .05$). 따라서 이 결과들은 한국판 DERS의 전체 척도와 하위척도들 모두 변별타당도가 양호함을 나타낸다.

준거관련 타당도

한국판 DERS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정서조절곤란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건강의 지표 또는 적응수준에 대한 측정도구들인 한국판 BDI, BAI, PANAS-정적 정서 하위척도, PANAS-부적 정서 하위척도, PWBS 및 SWLS와 한국판 DERS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한국판 DERS 전체 척도는 이러한 척도들 모두와 각각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우울증상, 불안증상, 부정적 정서경험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와는 중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이에 더해,

한국판 DERS의 6개 하위척도들은 한국판 PANAS-정적 정서 하위척도를 제외한 BDI, BAI, PANAS-부적 정서 하위척도, PWBS 및 SWLS와 각각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한국판 PANAS-정적 정서 하위척도의 경우, 한국판 DERS의 하위척도 3 및 하위척도 4와의 상관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다른 4개의 하위척도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판 DERS의 전체 척도 및 하위척도들의 준거관련 타당도가 양호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증분타당도

한국판 DERS의 증분타당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한국판 DERS로 측정되는 정서조절곤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여러 구성개념들의 효과를 통제한 다음, 한국판 DERS와 정신건강의 지표 또는 적응수준에 대한 측정도구들 간의 상관이 여전히 유의미한 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정서지능을 제는 한국판 TMMS를 통제변인으로 지정하고 한국판 DERS와 정신건강 지표들 간의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s)을 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DERS는 한국판 PANAS의 정적 정서 하위척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신건강지표들과 유의미한 부분상관을 보였다. 현재 경험에 대한 주의와 자각에 대한 측정도구인 한국판 MAAS를 통제변인으로 지정하고 한국판 DERS와 정신건강 지표들 간의 부분상관을 구한 결과, 한국판 DERS는 모든 정신건강 지표들과 유의미한 부분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험적 회피의 측정도구인 한국

표 5. 정서조절곤란과 관련된 다른 구성개념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한국판 DERS와 정신건강 지표들 간의 상관

척도 \ 통제변인	TMMS	MAAS	AAQ	WBSI
BDI	.40***	.33***	.27***	.35***
BAI	.37***	.24***	.29***	.28***
PWBS	-.30***	-.38***	-.20***	-.41***
SLWS	-.20**	-.26***	-.02	-.23***
PANAS-P	-.11	-.21***	.06	-.19**
PANAS-N	.37***	.28***	.28***	.25***

주. $n = 283$. TMMS = 특질 상위-기분척도; MAAS = 마음챙김 주의자각척도; AAQ = 수용과 행위질문지; WBSI = 사고억제 질문지; BDI = Beck 우울척도; BAI = Beck 불안척도; PWBS = 심리적 안녕감척도; SLWS = 삶의 만족도 척도; PANAS-P = 정적 및 부정 정서 척도-정적 정서; PANAS-N = 정적 및 부정 정서 척도-부정 정서.

** $p < .01$. *** $p < .001$.

판 AAQ를 통제변인으로 지정하고 한국판 DERS와 정신건강 지표들 간의 부분상관을 구한 결과, 한국판 SWLS와 한국판 PANAS의 정적 정서 하위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정신건강지표들과 유의미한 부분상관을 보였다. 사고억제수준을 재는 한국판 WBSI를 통제변인으로 지정하고 한국판 DERS와 정신건강 지표들 간의 부분상관을 구한 결과, 한국판 DERS는 모든 정신건강 지표들과 유의미한 부분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 결과들은 한국판 DERS가 정서조절곤란과 관련된 다른 구성개념들의 영향을 넘어서서 정신건강 지표들에 대해 고유하게 기여하며, 한국판 DERS의 증분 타당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특히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같은 정서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도구로서 최근에 개발된 DERS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한국판 척도를 만든 다음, 그 요인구조와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DERS의 요인분석 결과, 6요인구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국판 DERS는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그리고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이름 붙여진 6개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독립적인 대학생 표본에서도 대체로 반복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원판 DERS에서의 결과(Gratz & Roemer, 2004)와도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두 표본의 자료들로부터 분석한 한국판 DERS의 요인구조를 직접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요인별로 Tucker

(1951)의 일치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요인 5의 일치계수는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요인 2, 요인 1과 요인 3의 일치계수는 매우 높았고, 요인 6과 요인 4의 일치계수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아울러, 한국판 DERS의 36개 문항 중 6개의 문항들은 본 연구의 표본들 간에, 또는 원판 DERS에 대한 요인분석(Gratz & Roemer, 2004)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들은 정서조절곤란의 6가지 차원들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 특히, 정서반응에 대한 주의/자각의 부족과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요인이 구분되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능력과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삼가는 능력이 구분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 정서조절곤란의 전체 수준 뿐 아니라, 6가지 차원들 모두 성차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원판 DERS로 측정된 정서조절곤란 전체 점수와 6가지 하위차원들 중 정서적 자각의 부족 차원에서만 남자 집단이 여자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는 Gratz와 Roemer(2004)의 연구와 일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한국판 DERS로 측정된 정서조절곤란의 전체 및 6가지 차원들은 연령과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한국판 DERS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와 2주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모두 우수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연구 1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두 표본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문항들로만 구성된 6가지 하위척도들 모두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특히, 한국판 DERS의 전체 척도 및 하위척도 모두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하다는 점은 한국판 DERS로 측정되는 일반적인

정서조절곤란과 정서조절곤란의 6가지 뚜렷이 구분되는 차원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교적 안정된 구성개념, 즉 일종의 특질이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국판 DERS로 측정된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지능이나 경험적 회피 같이 정서조절과 비슷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성이 높았는데 비해, 정서조절과 개념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과의 상관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서조절곤란의 특정한 차원들은 한국판 TMMS로 측정된 정서지능의 세 가지 차원들과의 관계에서 차별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판 DERS 전체 척도 및 6가지 하위척도들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판 DERS와 한국판 TMMS, MAAS 및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판 DERS로 측정된 정서조절곤란 전체 및 특정 차원들과 한국판 TMMS의 세 차원들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Gratz와 Roemer(2004)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것으로 DERS의 구성타당도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더해, 한국판 DERS로 측정된 정서조절곤란은 우울 및 불안정도 뿐 아니라,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경험빈도,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 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한국판 DERS로 측정된 정서조절곤란의 6가지 차원들 중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과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차원은 긍정적 정서경험 빈도를 제외한 정신건강의 다른 대부분의 지표들과 관계가 있었으며, 정서조절곤란의 나머지 4차원들은 정신건강의 모든 지표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판 DERS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지지하는 것

일 뿐 아니라, Gratz와 Roemer(2004)의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정서조절곤란과 관련된 구성개념들인 정서지능, 현재 경험에 대한 주의와 자각, 경험적 회피 및 사고억제 등을 각각 통제 한 후에도, 한국판 DERS로 측정된 정서조절곤란은 우울수준, 불안수준, 심리적 안녕감 및 부정적 정서경험 등을 예측하는데 있어 고유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NMR로 측정된 부정적 기분 조절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의 영향을 통제 한 다음에도, 원판 DERS로 측정된 정서조절곤란이 친밀한 파트너 학대라는 행동적 결과와 유의미한 부분상관을 보였다는 보고(Gratz & Roemer, 2004)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판 DERS의 증분타당도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한국판 TMMS, MAAS, AAQ와 WBSI만으로는 정서조절곤란과 관련된 모든 임상적 측면들을 다 포괄하지 못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대학생 표본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사회 표본과 임상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에도 한국판 DERS의 요인구조, 신뢰도와 타당도가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판 DERS의 요인구조의 경우, 본 연구에서 독립적인 두 대학생 집단들로부터 각각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교차 타당화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한국판 DERS의 요인구조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둘째, 한국판 DERS의 구성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한 도구로, 관심있는 구성개념(예: 현재 경험에 대한 주의와 자각정도)에 대한 자기 보고형 검사들만을 사용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반응들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보고형 검사들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판 DERS의 구성타당도를 더 진전된 방식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향후 뇌 영상기법 등을 사용한 생리적 지표나 또는 얼굴표정 부호화 등 정서조절의 다른 양상들과의 관계를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Gratz & Roemer, 2004).

셋째, 임상적으로 유용한 측정도구로서 한국판 DERS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이 척도가 치료 동안 나타나는 변화를 민감하게 탐지하는지를 검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치료과정 동안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한국판 DERS의 민감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진 정서조절곤란의 여러 차원들이 다양한 정신병리나 정신장애에서 차별적인 역할을 하는 지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특정한 치료적 표적을 시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Gratz & Roemer, 2004).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만든 한국판 DERS는 정신병리와 정신건강의 영역에서 정서조절곤란을 매우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로 생각되며, 정서장애 등의 정신장애와 정신건강에 관한 여러 이론적

연구 및 임상 실제에서 앞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19-39.
- 박정현, 서은국 (2005).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19-31.
- 박진미, 서수균, 이훈진 (2007).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 717-730.
- 옥수정 (2001). 억압적 성격성향자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조절방략.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95-116.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용승, 원호택 (1999). 사고억제와 통제방략에서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37-57.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935-946.
- 전중희, 이우경, 이수정, 이원혜 (2007). 한국판 마음챙김 주의 자각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 201-212.
- 조성은, 오경자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정서주의력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의 관계. 2006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680-681.
- 조용래 (2003). 불안민감성 차원: 한국판 개정된 검사의 요인 구조. 2003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7-108.
- 조용래, 김은정 (2004). 한국판 불안통제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503-519.
- Barlow, D. H., Allen, L. B., & Choate, M. (2004). Toward a unified treatment for emotional disorders. *Behavior Therapy*, 35, 205-230.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rown, K. W., & Ryan, R. M. (2003). The benefits of being present: Mindfulnes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822-848.
- Campbell-Sills, L., Barlow, D. H., Brown, T. A., & Hofmann, S. G. (2006). Effects of

- suppression and acceptance on emotional responses of individuals with anxiety and mood disord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1251-1263.
- Cantanzaro, S. J., & Mearns, J. (1990). Measuring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negative mood regulation: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546-563.
- Cloitre, M.(1998). Sexual revictimization: Risk factors and prevention. In V. M. Follette, J. I. Ruzek, & F. R. Abueg(Eds.),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for trauma*(p.278-304). New York: Guilford Press.
- Cole, P. M., Michel, M. K., & Ter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Serial No. 240), 73-100.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Feldman, G., Hayes, A., M., Kumar, S., Greeson, J., & Laurenceau, J. (2007). Mindfulness and emotion regulation: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ognitive and Affective Mindfulness Scale-Revised(CAMS-R).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9, 177-190.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 286-299.
- Gratz, K. L. (2003). Risk factors for and functions of deliberate self-harm: An empirical and conceptu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0, 192-205.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41-54.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D.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1152-1168.
- Hayes, S. C., Strosahl, K. D., Wilson, K. G., Bissett, R. T., Pistorello, J., Tomarino, D., Polusny, M. A., Dystra, T. A., Batten, S. V., Bergan, J., Stewart, S. H., Zvolensky, M. J., Eifert, G. H., Bond, F. W., Forsyth, J. P., Karekla, M., & McCurry, S. M. (2004).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 model. *The Psychological Record*, 54, 553-578.
- Kamholz, B. W., Hayes, A. M., Carver, C. S., Gulliver, S. B., & Perlman, C. A. (2006).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cognitive affect-regulation strategies: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 227-262.

- Lee, J., & Cho, Y. (2005, November). *The mediational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beliefs about worry and generalized anxiety symptom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 Washington, DC.
- Levitt, J. T., Brown, T. A., Orsillo, S. M., & Barlow, D. H. (2004). The effects of acceptance versus suppression of emotion on subjective and psychophysiological response to carbon dioxide challenge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Behavior Therapy, 35*, 747-766.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Mennin, D. S., Heimberg, R. G., Turk, C. L., & Fresco, D. M. (2005). Preliminary evidence for an emotion dysregulation model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 1281-1310.
- Roemer, L., Litz, B. T., Orsillo, S. M., & Wagner, A. W. (2001).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strategic withholding of emotions in PTS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 143-150.
- Rude, S. S., & McCarthy, C. T. (2003). Emotional functioning in depressed and depression-vulnerable college students. *Cognition and Emotion, 17*, 799-80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 125-154). Washington, DC: APA Books.
- Salters-Pedneault, K., Roemer, L., Tull, M. T., Rucker, L., & Mennin, D. S. (2006). Evidence of broad deficits in emotion regulation associated with chronic worry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 469-480.
- Taylor, S., & Cox, B. J. (1998). An expanded anxiety sensitivity index: Evidence for a Hierarchic structure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463-483.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Serial No. 240), 25-52.
- Tucker, L. R. (1951). A method for synthesis of factor analysis studies. *Personnel research section report No. 984*.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Army.
- Tull, M. T. (2006). Extending an anxiety sensitivity model of uncued panic attack frequency and symptom severity: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Cognitive Therapy and*

- Research*, 30, 177-18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egner, D. M., & Zanakos, S. (1994). Chronic thought sup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62, 615-640.
- 원고접수일 : 2007. 8. 1.
게재결정일 : 2007. 10. 3.

Assessing Emotion Dysregul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Yongrae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There is an increas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emotion dysregulation in th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treatment of mental disorders. This article described two studies examin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 recently developed to comprehensively assess emotion dysregulation among adults. In Study 1, the results of factor analyses of the K-DERS revealed a six-factor solution -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lack of attention to and awareness of emotions," "nonacceptance of emotions," "lack of emotional clarity,"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ifficulties in engaging in goal-directed behavior", respectively. In Study 2, the six-factor structure was largely replicated in an independent sample. In addition, the results revealed high internal consistency, adequate test-retest reliability over a two-week period, good convergent, discriminant, criterion-related, and incremental validity of the K-DERS.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DERS is a highly reliable, valid measure to assess general and specific aspects of emotion dysregulation.

Key words : emotion dysregulation, Korean version of the DERS, mental disorders, experiential avoidance, psychometric properties

부록 1.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의 문항내용⁴⁾

1.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
2. 내가 어떻게 느끼는 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3. 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4.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5.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6. 나는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7.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를 정확하게 안다.
8.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9. 내가 느끼는 감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럽다.
1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
1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1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 된다.
1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다.
1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
1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오랫동안 내가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결국에는 내가 아주 우울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1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이 타당하고 중요하다고 믿는다.
1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2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은 끝마칠 수 있다.
2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낀다.
2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궁극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2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약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2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2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2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2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2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믿는다.
2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3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3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다.
3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3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3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이해한다.
3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3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들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4) 문항 1, 2, 6, 7, 8, 10, 17, 20, 22, 24, 34는 역채점 문항임; 문항 17은 한국판 DERS의 최종 문항

구성에서 제외되었음.